

## ‘문득’은 ‘아련’이 되어

모처럼 친구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는 한 중학교 앞에서 호떡을 굽고 있었다.

“많이 먹고 가렴”

아버지는 호떡을 굽다 말고 조용히 자리를 피해 저쪽 나무 아래로 가셨다. 맛있게 호떡을 먹고 있는 친구들을 두고 나는 아버지께 다가갔다.

“아버지, 왜 여기 나와 계세요?”

“우리 아들이 창피할까 봐.”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고개 숙여 눈물을 흘렸다.

‘문득’은 ‘아련’이 되어간다. 삶의 한가운데에서 문득 떠오르는 당신을 나는 오늘도 아련히 기억한다. 부모는 자식에게 보잘것없는 창피함보다 자랑스러운 본보기가 되고 싶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다.

아버지는 빈손으로 전라도 장성에서 도시까지 올라와 가정을 꾸렸는데, 호떡을 굽고, 버스도 운전하고, 구급차 기사도 하며 힘들게 가정을 돌보셨다. 여러 직장을 거치면서도 아버지께서 가장 중요시한 것은 ‘신뢰’였다. 구급차 기사를 하던 시절 인연을 맺은 가족에게는 늘 안부 인사를 전하고 이따금 나와 함께 병문안도 가시곤 했다.

신뢰로 쌓은 인연과 주변의 정직한 평은 아버지를 어느덧 한 사업체의 사장 자리까지 올려주었다. 아버지는 지역의 학교, 업체 등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식품도소매업을 하셨는데, 언제나 신선한 재료를 고집하셨다.

주변 경쟁 업체들은 이윤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아버지는 그가 걸어온 길 그대로 이윤보다는 고객에 대한 신뢰를 더 중시했고 성실함과 고객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은 점점 성장해 나갔다. 하지만 이윤이 남지 않아 힘든 고비도 많았는데, 새벽마다 도매시장에서 식품을 선별하고 가장 신선한 재료를 제일 먼저 구입해야만 했다.

아버지는 본인의 자리를 늘 무서워했다. 언제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사업장의 리

더로서 본인의 부패와 일탈을 방지하는 견제 장치를 어떤 방식으로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곤 했다. 또한, 일순간의 일탈로 본인의 가정뿐만 아니라 리더를 따르는 직원들의 가정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회식을 할 때마다 직원들과 시간을 짧게 가지고 늘 일찍 일어나 혼자 오시곤 했다.

“아버지! 아버지는 왜 늘 먼저 일찍 오세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리더를 평가할 시간을 주려고 하는 거란다. 리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서로 논의할 시간 말이다.”

“사장 육할 시간 주는 거네요?”

“허허허, 그런 셈이지.”

아버지는 늘 “上行下效(상행하효)”를 마음에 품고 말씀하시곤 했다. “윗사람이 행하면 아래 사람이 본받는다.” 즉,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뜻으로 제일 청렴해야 할 사람은 직원들이 아니라 리더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상호 토론과 대화를 좋아했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또 평가받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업무 협의를 오는 타사 직원들이 주차 공간이 불편하다고 호소하자 인근 유료주차장에서 주차권을 사전에 구입해 두고, 회의 전 명함과 함께 이를 한 장씩 건네주곤 했다.

사업을 하다 보니 부정한 청탁은 보통 이와 같은 업무 협의에서 은밀히 이루어짐을 깨닫게 된 아버지는 고민이 깊어졌다. 무작정 고향에서 올라와 지금까지 본인이 이루어온 모든 것은 성실함과 주위 사람들과의 신뢰 덕분이었고, 청렴에서 나오는 당당한 업무 추진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사업가로서 그러한 청탁을 자연스럽게 거절하기란 영 쉬운 일은 아니었다. 당당하게 물리쳐야 할 청탁임에도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서 어렵고 미안해하며 불편한 미소로 거절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유료주차장 사업주를 찾아갔다. 주차권 제작 시 디자인을 새롭게 하자는 제안이었다. 그 주차권에는 청렴을 강조하는 문구를 새로 넣고, 부패·공익 신고와 상담을 하는 대표 전화를 넣기로 한 것이다. 아버지는 회

의 시작 전에 늘 먼저 새롭게 제작한 주차권을 건넸다.

“주차권입니다. 돌아가실 때 제시하시면 됩니다.”

청렴 문구가 함께 적힌 새로운 주차권과 명함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전달해주었다. 그렇게 아버지는 당신이 만나는 모두에게 청렴 의지를 강력히 표현하였고, 부정한 청탁들을 한결 편한 마음으로 거절할 수 있었다.

공기업 직원으로서, 나는 아버지의 이러한 사례를 본받아 기관의 청렴 담당 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아이디어를 내고 청렴 주차권 제작까지 실천한 바 있다. 아버지는 늘 내게 귀감이 되어주셨다.

언제나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기를 좋아하시던 아버지.

말보다 마음으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셨는데, 그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은 언제나 본인이 먼저 실천하는 것이었다.

학창 시절, 어두워진 하룻길에 집까지 오는 동안 책을 보며 걸어온 적이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뒤에서 내 어깨를 감싸 주었다. 아무리 먼 길이라도, 아버지는 그렇게 늘 내 뒤를 묵묵히 지켜주며 아무 말 없이 함께해주셨다. 그래서 늘 긴장하고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며 가다듬을 수 있었다.

아버지는 직장에서도 직원들에게 그랬다. 언제나 묵묵히 각자를 응원하였다. 직접 실천하는 공정한 업무처리와 조용히 전해지는 믿음은 백만 번의 지시나 부탁보다 더 힘이 있었다. 즉, 모든 업무에 신뢰와 공정함을 바탕으로 한 리더의 청렴 실천은 직원들에게 따로 지시하거나 부탁할 필요가 없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직원들은 마음으로 느껴지는 아버지의 그런 깊은 믿음에 대해 신뢰와 공정한 업무로 보답하고자 했다.

5개월간의 인턴사원을 거쳐 최종면접일에 면접관은 내게 질문했다.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를 가장 존경합니다. 저는 아직 정직, 청렴, 공정 이러한 의지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건 아마도 제가 아직 어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이러한 실천들이 쌓여 10년 뒤, 그리고 20년 뒤 큰 자산이 되어 자신에게 큰 힘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사업

장의 사업가일 뿐이지만 누구보다 당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저는 이러한 청렴의 힘을 믿고 실천하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저의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지금은 긴 투병 끝에 하늘로 가신 아버지. 초롱초롱한 내 아이를 보며 문득 아련해진다. 그렇게 묵묵히 지켜주던 아버지의 든든함이 그립다.

문득은 아련이 되어  
문득문득 그려보는 초롱한 내 아이  
생각을 담은 중에도 고민을 내려놓은 그 사이에도  
가슴 언저리에서 문득 피어나는 너  
나도 그 사람에게 문득이었을까  
문득문득 그렇게 언저리에서 느껴졌을까  
그의 유년을 지나 나와 만난 후  
문득문득 여겨주었을까  
사랑하는 널 문득 여기며  
문득 아려오는  
나도 그가 되어가는 또 오늘에서

먼길을 걷고 돌아 2층 후미진 곳의 문을 열었다. 아버지와 엄마, 동생들이 있었다. 여전히 장비에 둘러싸여 있고 바늘을 꽂고 누워있었지만 언제나처럼 그는 여유롭게 기대어 있었다. 가족들이 하나같이 물었다. 갑자기 무슨 검사냐며 모두 의아해했지만 그는 그저 웃기만 했고, 엄마는 정기적인 검사라며 모두를 안심시켰다.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모처럼 환하게 웃었다. 그도 장난스럽게 미소 지었다. 가족들이 웃고 있을 때 나도 한마디 거들었다.

“아버지, 나 잘 살고 있지?”

그가 내게 말해주었다.

“응, 누구보다 정직하게, 청렴하게 아주 좋구나!”

했다. 여전히 눈은 감고 있지만 정신은 멀쩡했고, 나는 그렇게 누운 채로 하염

없이 또 한참을 울었다.

“그 말이, 그 말을 그렇게 해주고 싶었구나. 아버지, 바쁘다고 잊고 있었어요. 그새 잊고 살았네. 아버지.”